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2023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본격 추진

✎ 김원중 | ⓒ 승인 2023.03.16 14:56

재해예방 영농편의 총력전



▲ 재해대비개보수 현장 모습 (사진=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박운근)이 관할지역의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해 4지구에 24억여원을 투입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파손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수리시설의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박 지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은 노후화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영농편의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사는 향후에도 농업기반시설의 적기 보수, 보강을 통해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중 wjkim37@dailycc.net